인간 땔감

(행23:12-35)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간 땔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인간은 소우주이며 유한한 시간을 사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자이다. 그러므로 그토록 고귀하고 값진 자신의 존재를 각성하지 못하는 삶은 금보다 비싼 자단목을 땔감으로 쓰는 것과 같다. 존재각성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일관된 철학하는 인간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단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500년에서 1000년을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랜 세월을 자라다 보니 나무속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 실제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2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100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적갈색을 띄는데 톱으로도 잘 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물속에 넣으면 곧 가라앉아 버린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황실이나 귀족들을 위한 가구의 재목으로만 사용되던 나무랍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싼 나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실제로 자단목 1톤 가격이 14억 7천 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 누가 이렇게 비싼 자단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각성이란 자기가 자단목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인데, 철학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존재각성이 없이 살 때 자단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은 산

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논점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이 있든 없든 그 자체는 존재각성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신이 있든 없든 무관하게,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존재에 근거된 고유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신이 나를 창조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호모 필로소피쿠스(Homo Philosophicus) 즉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존재각성에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이런 사람, 스스로 생각함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호모 필로소피쿠스를 땔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 속에서 스스로를 아무리 자단목 같이 값진 존재라 여길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실 때 쓰시는 땔감의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2)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6,7)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은 곧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즉 그 분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땔감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더미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비록 포도나무 가지 같은 별 볼일 없는 나무가 아니라 금보다 비싼 자단목 일지라도 말입니다.

반면에 철학하는 인간이라는 책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준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인간은 (1) 스스로, (2) 자신의 신념(지식, 세계관)과, (3) 자신의 소망(지향심, 가치관, 꿈)으로부터, (4)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것이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과연 인간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일이삼사의 조건을 갖춘 ‘인간’이라고 정의 된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정확히 땔감으로 분류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3) 여기서 한 가지 꼭 집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에 던져질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운명을 언제나 최후의 심판 때에 주어질 형벌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성경에 나올 때면 반드시 지옥 불이나 아니면 아주 극심한 환란을 떠올리곤 합니

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3:10), “혹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겔15:6)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즉 호모 필로소피쿠스를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쓰신다는 뜻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땔감이라는 말 속에 답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즉 연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같이 타 오르는 형벌 속으로 던져 넣는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연료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실행하시고 추진하시기 위한 연료중의 하나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대체 모든 인본주의자들 혹은 호모 필로소피쿠스들이 들으시면 무척이나 기분 상하시게 될 것이 분명한 이 덜 떨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4)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연이어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 십 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과 암살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암살계획이 누설 되고 맙니다. 바울의 생질을 통해 바울 자신이 알게 되고 결국은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시민인 바울이 정당한 법적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밤 9시에 군사470명으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가를 통해 기록하신 이런 건조하기만 하게 느껴지는 사실 보고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5) 사도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도이셨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비행기만 타면 불과 몇 시간 못 되어 예수살렘에서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천년 전입니다. 한 반도의 삼한 마한 부족국가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필연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를 향해 거리를 좁혀 갈 것입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 걸까요? 먹는 것 자는 곳은 어떻게 조달 할 것입니까? 그

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변의 안전입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도시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고 험악한 여정 중에 사도 바울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고려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추진되어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이 계획의 추진력을 실제로 어떻게 조달 하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로켓이나 비행기가 창공을 날기 위해 연료를 태우듯이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기 위해 휘발유를 필요로 하듯이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연료를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6) 모든 바울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땔감으로 동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로호가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하늘을 향해 치솟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0명으로 이루어진 암살단은 사도 바울을 로마를 향해 쏴 올리는 로켓발사대에서 로켓이 뿜어대는 불 기둥이였습니다. 바울의 생질의 귀에 이 암살 계획이 들어가게 된 사실은 발사대에 놓여지게 된 로켓의 추진 장치에 점화를 시킨 셈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암살단과 산헤드린 회원들의 암살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갖는 추진력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로마를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달나라 유인 우주선에는 캡슐을 탑재합니다. 이 캡슐은 우주인들을 안전하게 달에 도착하게 할 때까지 예측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처럼 암살단의 결성은 사도바울에게 당시 전 세계 제일의 슈퍼강국 로마의 행정력과 군사력을 안전을 위한 캡슐로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추진된 것이지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 로마로 호송 되는 동안 로마 정부가 사도바울의 신변의 안전뿐 아니라 모든 잘 곳과 입을 것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의해 로마의 동쪽 세계처럼 서쪽 세계도 역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대적들이 갖는 생각의도 열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향하신 당신의 섭리를 위한 추진 연료로 사용을 하시면서 유럽을 기독교의 세계로 변화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하는 사람답게 되기 위한 네 가지 여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봅니다. “인간은 (1) 스스로, (2) 자신의 신념(지식, 세계관)과, (3) 자신의 소망(지향심, 가치관, 꿈)으로부터, (4)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것이다.

40인의 암살단이 바로 이러한 일이삼사의 과정을 거쳐 결성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스스로 결단 합니다. 정당한 행위라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민의 특권을 수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두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추진하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되는 자단목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철학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학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인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지점입니다.

7) 그러면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11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기만 한 것 뿐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귀에 들리는 상황 그 모든 경우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자기 처지에 대해 단 한 조각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밝히신 계획과 말씀만 붙잡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말씀을 자기 마음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여 붙잡고 있는 한 그 말씀과 그 계획은 반드시 추진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이 뜻이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이후의 특징이지요. 이제 죄의 결과로 생긴 체질 즉 스스로 자기 문제를 생각하려는 이 못된 체질에서 솟아나는 모든 나의 생각은 그 때 그 때 예외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단지 땔감으로 쓰이는 인생일 뿐입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암살단도 바울을 죽이기로 스스로 결심하여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땔감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 계획을 실해에 옮기면 옮길수록 바울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소위 지체 높은 엘리트들입니다. 유대사회 내에선 자단목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여 추진하려는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권력자든 철학 박사든 상관없이 모두 연료 확보를 위한 땔감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소망을 찾아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님의 땔감으로 전락될 운명을 피하기 위하여, 내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